

# 현안과 과제

| 개성공단, 중국·베트남보다 경쟁력 우월

## 1. 개성공단 사업의 성과와 의미

개성공단 착공 8주년(2003. 6. 30 착공)을 맞아 개성공단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2011년 3월말 현재, 개성공단에는 122개 기업이 가동 중으로 46,302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누적 생산액은 12.0억 달러에 달한다. 2010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남북 교역은 14.4억 달러로, 남북간 상업적 거래 18.9 억 달러의 약 76.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조성 계획이 완료되면 약 35만 명의 고용창출과 연 160억 달러의 생산 효과가 기대된다. 개성공단 사업은 정치·군사적으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분위기 조성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남북 경제공동체의 실험장 역할을 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대규모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이질감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 2. 개성공단의 경쟁력 분석

개성공단은 세제·임금·토지 사용 등의 제도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에서 중국과 베트남 공단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우선 제도적 조건에서는 첫째, 세제상 혜택 부문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개성공단은 14%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한편, 중국은 2008년부터, 베트남은 2009년부터 외국인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를 폐지하고, 내외국인 기업에 동일한 25%의 기업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노동과 임금의 측면에서 개성공단은 양질의 노동력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노력알선기업을 통한 간접 채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인센티브 적용의 어려움 등 고용 유연성이 부족한 것은 개선 과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낮은 것은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도 개성공단은 2014년까지 토지사용료 납부를 면제하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외국 기업의 토지사용료 면제 혜택이 폐지되어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물리적 조건에서는 첫째, 물류 인프라의 경우 개성공단은 남한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물류비 및 물류기간 절감으로 기업의 판매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베트남 공단에 비해 경쟁력이 크며, 무관세도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판로의 측면에서는 남한의 수도권 내수시장과 중국, 북한 소비 시장 진출에 대한 잠재력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싱가포르와 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간 정치 군사적 문제가 해결될 경우 미·일·EU 시장에서도 한국산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시사점과 과제

개성공단 사업은 내수경기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공업 활력 제공 등 한국경제의 양극화 문제 완화에 기여하므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남북 상생 공영의 성공적인 경험 모델과 경제공동체 형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 희생과 남북한 경제력 격차 완화로 통일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다만, 남북간의 정치 군사적 문제로 개성공단의 경쟁력과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약조건들을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민간 경험과 교류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 < 개성공단의 경쟁력 분석>

조건		중국 청도공단	베트남 탄뚜언공단	북한 개성공단	비교
제도적 조건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소득세 25%,</li> <li>- 외국인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소득세1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공단 경쟁력 보유</li> </ul>
	노동 및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112~135 달러</li> <li>- 노동생산성 60%</li> <li>- 임금인상률 연 20% 상회</li> <li>- 직접채용/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63~71 달러</li> <li>- 노동생산성40%</li> <li>- 임금인상률 연 10~15%수준</li> <li>- 직접채용/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60.8 달러</li> <li>- 노동생산성71%</li> <li>- 임금인상률 연 5%이내</li> <li>- 간접 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이직율과 임금 조건은 경쟁력 보유</li> <li>- 고용 유연성 미흡</li> </ul>
	토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가격 100~200달러/m<sup>2</sup></li> <li>- 토지사용료 연 1.32달러/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가격 200~260달러/m<sup>2</sup></li> <li>- 공단관리비 연 0.84~0.9달러/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가격 41달러/m<sup>2</sup></li> <li>- 토지사용료 2014년부터 납부 예정(금액 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이용 관련 경쟁력 보유</li> </ul>
물리적 조건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테이너 20 FT 왕복 물류비: 최소 1,020달러</li> <li>- 기간: 7~8일 (산둥성-인천)</li> <li>- 관세 : 6.5~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컨테이너 20 FT 왕복 물류비 : 최소 1,130달러</li> <li>- 기간 : 9~10일 (호치민-부산)</li> <li>- 관세 : 8~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바디 지입차 왕복 물류비 : 318~364달러</li> <li>- 기간 : 1일 이내</li> <li>- 관세 : 무관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류비 물류기간 관세 등 우월한 경쟁력 보유</li> </ul>
	판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내수시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 소비시장 성장 잠재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내수시장과 중국 소비시장 진출 잠재력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로 한국산 인정 가능</li> </ul>

### 1. 개성공단의 성과

○ (현황) 2011년 3월말 현재, 122개 기업이 가동 중으로 46,302명의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누적 생산액은 12.0억 달러에 달함

- (생산) 2010년 연간 생산액은 3.2억 달러로, 2009년 2.6억 달러에 비해 약 26.1% 증가 (1/4분기 증가율 : 2010년 38.9% → 2011년 17.2%)
- 수출은 전체 생산의 약 14.2%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은 호주(24.8%), EU(18.9%), 중국(18.4%), 러시아(15.5%), 중동(12.6%), 일본(1.6%) 순임

#### < 개성공단 제품의 생산 및 수출 추이 >

(단위 : 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3	합계
입주업체 수(개)	18	30	65	93	117	121	122	122
생 산 (A)	1,491	7,374	18,478	25,142	25,647	32,332	9,112	119,576
수 출 (B)	87	1,983	3,967	3,584	2,860	3,668	807	16,956
수출비중(B/A)	5.8%	26.8%	21.4%	14.3%	11.2%	11.3%	8.9%	14.2%

자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각호 참조.

- (남북 경협 비중) 2010년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남북 교역은 14.4억 달러로, 남북간 상업적 거래 18.9억 달러의 약 76.4%를 차지
- 총 교역 대비 개성공단 사업 비중은 2005년 16.7%에서 2008년에는 44.4%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 1/4분기 현재 98.9%를 차지

#### <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 >

(단위 : 만 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4
총교역(A)		105,575	134,974	179,790	182,037	167,908	191,225	40,599
상업적 거래(B)		68,954	92,807	143,117	171,187	164,212	188,922	40,524
개성공단(C)		17,674	29,880	44,068	80,845	94,055	144,286	40,136
개성공단 비중	총 교역 대비 (C/A)	16.7%	22.1%	24.5%	44.4%	56.0%	75.5%	98.9%
	상업적 거래 대비 (C/B)	25.6%	32.2%	30.8%	47.2%	57.3%	76.4%	99.0%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현황 각호 참조.

○ (개성공단 사업 효과) 3단계가 완성되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경제 지대와 자유신도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

- 1단계 개발(100만 평) : 노동집약산업 및 투자 환경 조성
  - 시범단지 및 1단계 부지를 분양 가동 완료, 노동집약 업종 유치, 투자 및 생산 환경의 조성이 기대
  - 약 9.4만 명의 고용창출과 연 25.5억 달러의 생산액 달성
- 2단계 개발(250만 평) : 도시형산업 기반 조성 및 수출전진기지 역할 기대
  - 경공업과 전기·전자, 기계, 금속 등 중공업, 의료기기 등 도시형 업종을 집중 육성하여, 첨단산업 기반을 형성하고 세계적인 수출전진기지 구축을 기대
  - 약 22.6만 명의 고용창출과 연 86.5억 달러의 생산액 달성
- 3단계 개발(550만 평) : 다국적 복합단지로 부상
  -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 분야의 복합공업단지로 발전, 대기업 및 해외기업, 다국적기업을 유치,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육성하여 국제자유무역지대로 부상
  - 약 35만 명의 고용창출과 연 160억 달러의 생산액 달성

< 개성공단의 단계별 개발 계획 >

	공업지구	업체 수	고용 인원	매출액	투자액
제1단계 (2003~08)	100만평 (3.3km <sup>2</sup> )	300개	9.4만 명	25.5억 달러	9.2억 달러
제2단계 ( ~2012)	150만 평 (5.0km <sup>2</sup> )	1,000개	22.6만 명	86.5억 달러	24.8억 달러
제3단계 ( ~2020)	350만 평 (11.6km <sup>2</sup> )	2,000개	35.0만 명	160.0억 달러	48.8억 달러
합 계	600만 평 (19.8km <sup>2</sup> )	2,000개	35.0만 명	160.0억 달러	82.8억 달러

주 : 1) 상기 계획은 현대아산과 언론보도 등을 재정리한 것으로 최종안이 아님.  
 2) 업체 수와 고용 인원, 매출액은 각 단계별 기간말의 누적 기준이며, 공단을 800만 평으로 확장할 경우의 매출액은 3단계가 완공되면 200억 달러 예상.

○ (개성공단 사업 의미) 남북간 화해·협력과 상생·공영의 상징이자 남북 경제공동체의 실험장 역할뿐 아니라, 남한의 내수 경기 활성화를 촉진

① 정치·군사적 의미 :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분위기 조성의 계기 마련

- 개성공단 사업을 통한 군부대 이동은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의 북상 효과

뿐만 아니라, '갈등과 대립'의 비무장지대(DMZ)를 화해·협력의 '통일의 꿈을 실현해나가는 평화적' 공간(Dream Making Zone)으로 전환 계기

## ② 경제적 의미 : 내수 경기 활성화와 남북 경제공동체의 실험장 역할 등

- 중소기업의 활로 제공 및 중국특구의 현실적 대안 : 개성공단은 남한의 수도권 공단으로 고임금·인력난·부지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제공
  - 특히,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100% 고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대졸 이상도 20.2%에 달함<sup>1)</sup>
- 개성공단의 북한 주민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 효과 : 북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자본과 선진 기술과 생산 관리 노하우 등을 전수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
  - 2011년 3월 현재 근로자 4만 6,302명 × 4인(가구당 4인) = 18만 5,208명 교육 효과가 있으며 3단계가 완성될 경우, 35만 명을 고용하면 약 140만 명의 교육 효과
  - 나아가 개성공단에서의 기술 숙련공들은 북한 경제 회생의 산업 일꾼은 물론, 남북 경제 통합을 위한 기초 인력으로 활용 가능
- 높은 산업연관효과<sup>2)</sup>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부자재, 식재료 등의 조달을 위해 업체당 평균 34.4개사의 협력업체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며, 연간 평균 거래 규모는 47.9억 원에 이룸
  - 2005년부터 2010년 9월까지 개성공단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47.4억 달러,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3.8억 달러, 수입유발효과는 9.4억 달러, 취업유발효과는 27,547명, 고용유발효과는 19,721명으로 분석

## ③ 사회·문화적 의미 :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이질감 완화

- 공단 내 업무 수행을 통해 남북 인력이 함께 호흡하면서 상대방과 상대방 사회의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접촉의 확대로 이질감 해소

1)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개성공단 기업의 국내산업 파급효과 및 남북 산업간 시너지 확충방안』, 2010.11. p. 47

2)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 전계서. pp. 68~123 참조.

## 2. 개성공단의 경쟁력 분석

○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 일반적으로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로  
는 제도적 조건과 물리적 조건 등의 요소들이 있음

- 제도적 조건 : 특구 관련 법제 구축, 각종 세제상의 혜택, 유연한 노동 규정 및 저렴한 임금, 토지 이용 관련 혜택 등이 제도적 성공 조건으로 구분됨
- 물리적 조건 : 인프라의 구축, 배후 지역을 고려할 때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 조건 등이 물리적 성공 조건으로 구분됨

### < 경제특구 성공 조건 >

구분	조건
제도적 조건	- 특구 관련 법제 구축 - 각종 규제 철폐 - 조세 감면 혜택 및 외환, 금융상 혜택 - 유연한 노동 규정
물리적 조건	- 적절한 인프라 구축 - 물류체계의 정비 및 원활한 유통 환경 조성 -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

자료 : 이상준 외,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 - 경제특구의 수요 및 공급요건 분석을 토대로』, 국토연구원, 2004. p. 12 참고 재구성

○ (비교 대상 선정) 중국과 베트남의 유사 특구 및 공단과 개성공단을 경제특구의 성공 조건의 분석들에 따라 비교 연구

- 비교 대상 선정 : 북한 개혁·개방의 모델이 되고 있는 중국의 특구 가운데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산둥성 내 청도경제기술개발구와 베트남의 특구 가운데 외국기업 유치에 활발한 호치민시 탄뚜언수출가공구를 선정
  - (청도경제기술개발구) 1984년 10월 중국 국무원에서 비준하여 설립한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로 가전, 석유화학공업, 자동차, 선박, 신소재, 항구 물류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여 발전
  - (탄뚜언수출가공구) 1991년 11월 국무회의 결정 안(제394-TC)호에 의해서 호치민시에 건설이 인가된 베트남 최초의 수출가공구로서 대만 기업과 베트남 국영기업이 합작으로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의류·직물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입주해 있고, 기계, 전기·전자업종 순임

· (개성공단)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당국이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개시되었으며, 남북한 최대의 경제협력 사업으로 발전

- 선정 이유 : 청도와 탄두언 공단은 정부의 개혁 개방의지에 의해 선정된 공단이며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있으며, 지리적, 정책적 관점에서 개성공단과 유사하여 비교 대상으로 적합

### 1) 제도적 조건 비교

#### ○ 각종 세제상의 혜택

- 조세제도 : 개성공단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윤발생년도부터 5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해주는 세금 우대 제도 적용으로 유리
- 중국은 2008년부터, 베트남은 2009년부터 외국인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를 폐지하고, 내외국인 기업에 동일한 25% 소득세율 적용

#### < 조세제도 비교 >

	청도공단	탄두언공단	개성공단
기업 소득세	- 25% 소득세율 적용 - 2008년부터 우대제도폐지	- 25% 소득세율 적용 - 2009년부터 내외국인 기업 동일 적용	- 당기순이익의 14% - 이윤발생년도부터 5년간 면제, 면제종료 후 3년간 50% 감면

#### ○ 노동의 유연성과 임금 수준

- 노동제도 및 임금 : 개성공단은 양질의 노동력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
-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노동시장을 통한 자율 채용이 가능하나, 개성공단은 노력알선기업을 통한 간접 채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인센티브 적용의 어려움 등 고용 유연성이 부족한 것은 개선 과제로 지적
- 그러나 이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낮은 것은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



< 노동제도 및 임금 비교 >

	청도공단	탄두언공단	개성공단
인력채용	노동시장을 통한 직접채용	노동시장을 통한 직접채용	노력알선기업을 이용한 간접채용원칙
노동력수급	높은 이직률, 인력 수급 어려움	유휴인력 존재하나, 높은 이직과 3D업종 기피로 구인난 발생	낮은 이직률, 기업이 필요한 인력 공급 부족
노동생산성 (한국 = 100)	60%	40%	71%
최저임금	월 112~135 달러	월 63~71 달러	월 60.8 달러
사회보장	급여 총액의 30%	급여 총액의 20%	급여 총액의 15%
임금인상률	연 20% 상회	연 10~15% 수준	연 5%이내(법규로 제한)

자료 : 조명철, 『개성공단과 주요 해외공단과의 경쟁력 비교연구』,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p. 11 참고 재구성

○ 토지 이용 관련 혜택

- 토지제도 : 개성공단은 2014년까지 토지사용료 납부를 면제하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외국 기업의 토지사용료 면제 혜택이 폐지되어 개성공단이 좋은 여건임

< 토지제도 및 가격 비교 >

	청도공단	탄두언공단	개성공단
토지 가격	100~200달러/㎡	200~260달러/㎡	41달러/㎡
토지사용세	토지사용세 연 1.32달러 수준/㎡	공단관리비 연 0.84~0.90달러/㎡	2014년부터 토지사용료 납부 예정, 금액 추후 협의
분양 조건	50년 임대권	50년 임대권	50년 배타적 토지이용권
임대공장 사용료	월 1달러/㎡	월 4~6.5달러/㎡	월 4달러/㎡

자료 : 조명철, 전게서, p. 115~116 참고.

2) 물리적 조건 비교

○ 인프라의 구축

- 물류 경쟁력 : 개성공단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물류비는 물론, 관세 측면에서도 유리

- 개성공단은 남한과 생산체계를 연계하여 물류 및 생산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비용 절감뿐 아니라 기업의 판매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물류 경쟁력 비교 >

	청도공단	탄두언공단	개성공단
물류비	컨테이너 20 FT 왕복 : 최소 1,020달러	컨테이너 20 FT 왕복 : 최소 1,130달러	왕바디 지입차 왕복 : 318~364달러
물류기간	7~8일(산동성-인천)	9~10일(호치민~부산)	1일 이내
관세	6.5~13%	8~13%	무관세

자료 : 조명철, 전게서, p. 158 참고.

○ 배후 지역과 제품 판로를 고려한 입지 조건

- **입지 조건** : 개성공단은 서울과 약 60~70km 떨어진 수도권 공단으로 개성공단 생산품의 소비와 유통은 물론, 남한의 SOC와 기발 시설의 활용이 가능
  - 인천 공항과 항만을 이용한 글로벌 물류 유통망 여건 구비
- **제품 판로** : 남한의 수도권 내수시장과 중국, 북한 소비 시장 진출에 대한 잠재력 충분
  - 현재 싱가포르와 아세안(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간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될 경우 미·일·EU 시장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

< 제품 판로 비교 >

	청도공단	탄두언공단	개성공단
지리적 위치	- 산동성 교주만 서해안	- 호치민시 중심부 제 1구 : 4km - 호치민 서부 신도시 개발 지역 : 1.5km	- 황해북도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 - 서울과 60km, 평양과 160km 거리
원부자재 조달	- 현지조달 확대	- 연관기반시설 취약, 일부 현지구매	- 종합 국제 공단 건설로 공단 내 자체 조달 가능
현지 판매	-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시장 확대, 원청사 동반진출 기계·전자 현지 납품	- 베트남과 인근 동남아 소비 시장 성장 잠재력	- 평양 등 북한 내수 진출 가능성 존재
제3국 판매	- 중저가 제품 위주의 OEM 방식 수출	- 다국적기업의 의류, 신발 OEM 판매	- 남한, 중국 등 - FTA로 한국산 인정 가능성 존재

3) 종합 비교

○ 개성공단은 물류 경쟁력과 임금 조건, 세제상 혜택 등에서는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중국과 개성공단의 성공 조건 비교(종합표) >

조건	중국 청도공단	베트남 탄꾸언공단	북한 개성공단	비교	
제도적 조건	세제	- 기업소득세 25%, - 외국인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 폐지	- 기업소득세14%	- 개성공단 경쟁력 보유	
	노동 및 임금	- 월 112~135 달러 - 노동생산성 60% - 임금인상률 연 20% 상회 - 직접채용/해고	- 월 63~71 달러 - 노동생산성40% - 임금인상률 연 10~15%수준 - 직접채용/해고	- 월 60.8 달러 - 노동생산성71% - 임금인상률 연 5%이내 - 간접 채용	- 낮은 이직율과 임금 조건은 경쟁력 보유 - 고용 유연성 미흡
	토지 이용	- 토지 가격 100~200달러/㎡ - 토지사용료 연 1.32달러/㎡	- 토지 가격 200~260달러/㎡ - 공단관리비 연 0.84~0.9달러/㎡	- 토지 가격 41달러/㎡ - 토지사용료 2014년부터 납부 예정(금액 미정)	- 토지 이용 관련 경쟁력 보유
물리적 조건	물류	- 컨테이너 20 FT 왕복 물류비: 최소 1,020달러 - 기간: 7~8일 (산둥성-인천) - 관세 : 6.5~13%	- 컨테이너 20 FT 왕복 물류비 : 최소 1,130달러 - 기간 : 9~10일 (호치민-부산) - 관세 : 8~13%	- 윈바디 지입차 왕복 물류비 : 318~364달러 - 기간 : 1일 이내 - 관세 : 무관세	- 물류비 물류기간 관세 등 우월한 경쟁력 보유
	판로	- 대규모 내수시장	- 동남아 소비시장 성장 잠재력	- 수도권 내수시장과 중국 소비시장 진출 잠재력 보유	- FTA로 한국산 인정 가능

### 3. 시사점과 과제

○ 개성공단 사업은 내수경기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 및 경공업의 활력 제공 등 국내 산업의 양극화 문제 완화를 위해서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개성공단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남북 상생·공영의 성공적인 경험 모델과 경제공동체 형성의 단초를 제공

·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 희생과 남북한 경제력 격차 완화로 통일비용 절감에도 기여

- 또한, 개성공단은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물류거점 확보를 통해 동북아 허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을 보유

· 경의선이 TCR과 TSR 등과 연결될 경우, 한반도를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연결하는 물류거점 및 동북아의 허브 역할 기대

· 개성공단은 인천항과도 연결됨으로써 서울(금융·회계)~인천(물류)~개성의 삼각 경제벨트는 물론, 동북아의 물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경우 놀라운 시너지 효과 기대

○ 다만,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문제로 개성공단의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제약조건들을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해 FTA 추진 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협상 전략 필요

이해정 선임연구원 (2072-6222, hjlee@hri.co.kr)